



이 용 태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  
(주)삼보컴퓨터 회장

##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신미년 한 해를 뒤로 하고 1992년 임신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정보산업 발전과 정보화 촉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정보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경제적 난국」으로 시작한 지난해 정보산업계의 경영환경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웠으며 그만큼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시련 또한 컸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요기반의 취약 등에 의한 기업 체산성 악화, 기술력 열위,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난제들이 중복되었고, 정부 구매제도와 그 행정의 불합리한 운용은 과당경쟁과 가격체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업계의 정상 경영유지를 어렵게 하는 애로요인이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이 가속된 가운데 해외 기업·상품과의 경쟁은 가열되기 시작하였고 높은 기술장벽 아래서의 과중한 로열티 지불 등 원가부담 요인은 한층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간 정보산업계는 국내 시장확보

노력의 지속, 컴퓨터 국산화추진, 노트북 PC의 공급확대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 하였고, 다양한 S/W 생산기반 강화,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운용 등 공급노력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역시 관련 법·제를 보완하고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산업성장 여건조성에 정책적 비중을 높혀 온 것은 다행한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인 여러분!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정보산업은 기대한 만큼 내실있는 성장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 선진국은 물론 경쟁상대국들까지도 21세기가 마지막 남은 10년에 달려있다는 기초적 인식하에서 고도 정보화를 향해 매진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과 정보화 추진은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한채 너무 미려하고 지체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폭되고 있는 구조적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

늘의 난국을 새로운 도약의 국면으로 전환시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저력의 결집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주체가 협력하여 21C에 대한 꿈과 기대를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합의와 실천적 좌표를 설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고위 정보화심의기구의 설치와 체계적인 종합정보산업교육계획의 수립·시행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업계는 첫째, 첨단·핵심기술을 개발, 확보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업계의 지속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세째,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소비자 지향 제품개발로 시장개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삼년 동안 우리는 우리 업계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체험해 왔습니다. 어찌보면 그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여

◆ 壬申年 各界의 設計를 들어본다 / 新年특집 ◆

우리가 확보·향유할 수 있는 시장과 과실을 놓치고 말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혈하지 않고 더불어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공존의 터전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정보산업인 여러분의 불굴의 건투를 기대하면

서 기업인, 종업원 여러분에게 성취의 보람과 생활의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